

##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서 수 균                      전 지 혜                      안 정 신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와의 갈등을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노인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탐색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 443명에게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를 실시하였으며,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자녀관계만족도,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척도, 노인사기척도, 행복지수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는 총 18문항으로 4개요인(관심/접촉부족(6문항), 자녀의 자기관리부족(3문항), 무시(6문항), 손자녀문제(3문항))를 포함하였다. 둘째,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62~.87로 적절하였다. 셋째, 부모-자녀관계만족도,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척도, PGMCS, 행복지수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타당성을 일관되게 지지하였다. 이어,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하위요인들이 부모-자녀관계만족도, PGCMS,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관계만족도에는 남성노인의 경우 관심/접촉부족이, 여성 노인의 경우는 무스와 자기관리부족이 확인되었다. PGCMS에는 남성의 경우 관심/접촉부족이, 여성의 경우는 무스와 관심/접촉부족이 확인되었으며, 행복지수에는 남녀 모두 관심/접촉부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 부모-자녀관계만족도,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사기, 행복지수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4886).

† 교신저자: 정영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Tel: 051-510-2135, E-mail: yschong@pusan.ac.kr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노인의 삶의 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성공적 노화연구로 이어지고 있다(정여진, 안정신, 2010).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특히 한국 노인에게는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인임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백지은, 최혜경, 2007;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2011; 정여진, 안정신, 2010). 성공적 노화에 대한 국내연구와 국외연구를 비교한 안정신 등(2011)의 연구는 국내연구에서는 나타나지만 국외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가족변인이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가족 관계 중 특히 노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나라 노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사회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일생을 통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이 노년기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노부모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송지은, 2006; 신효식, 이신숙, 이윤정, 1994; 유희정, 2011; 이윤정, 1994; 이주일, 박군석, 유경, 김영범, 장숙량, 윤현숙, 유희정, 김동현, 2008; 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 2012; 최형주, 김정석, 2012; Quinn, 1983).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애로서 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사회에는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었다. 즉, 과거 한국 가족은 경로효친 사상을 강조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

의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으나, 현대의 가족은 개인의 발달을 우선시하고 생산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부모-자녀 관계가 가족의 중심축이 되어 자녀가 가족 부양의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현대에는 가족의 중심축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부관계로 바뀌게 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더 나아가 노인 부양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지영, 2005;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9; 최정혜, 1992).

갈등은 둘 내지 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로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상반된다고 믿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태도나 가치 때문에 증폭된다(최정혜, 1992; Galvin, Brommel, & Bylund, 1982; Quinn, 1983). 노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갈등을 개개인의 가치와 태도의 차이로 인한 세대차이로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다. 노부모세대와 중년 자녀세대는 서로 다른 인생주기에 속하며 그로 인해 사회 및 정치적 사건을 서로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평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사상을 고수하려는 노부모의 가치관과의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효재, 1986; Bengtson, 1981). 둘째, 갈등의 원인을 노인의 의존성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녀에게 물질적 원조의 제공자,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해오던 부모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물질적, 정신적 원조를 자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성미애, 옥선화, 1991; Arling, 1976; Cicirelli, 1983).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노부모-자

녀간의 호혜성이 균형을 잃을 때, 즉 노부모의 의존과 자녀의 지원이 많을 때, 두 세대 모두 부가적인 잠재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최정혜, 1992; Cicirelli, 1983).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가 지각하는 자녀 갈등을 노부모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욕구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자녀와 대립한다고 지각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노인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서구의 노부모-자녀 관계와는 달리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국문화에서는 노부모와 자녀간 갈등은 노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정혜, 2009). 노부모와 자녀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하나 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노부모와 자녀간 갈등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또한 부족하다. 노부모와 자녀간 갈등과 관련된 척도를 살펴보면, Suiitor와 Pillemer(1988)의 연구에서는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0가지 항목(지출, 집안일, 다른 친지와 관계, TV, 음식, 과일, 약물사용, 자녀의 직업, 친구관계, 기타)에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였던 빈도로 노부모와 자녀간 갈등을 측정하였다. 최근에 Miguel과 Postigo(2010)가 3세대(자녀, 노부모, 손자녀)간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노인 동거 갈등 척도(Assessment of the conflict in coresidence with elderly people(ACE) scale)를 개발하였지만 이는 정확하게 노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실제 경험하는 갈등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노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자녀의 부양스트레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부양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질문지가 대부분이며, 이 또한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어 한국 문화적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정혜(1992)가 개발한 노부모-성인자녀간 갈등척도가 거의 유일하게 갈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노부모-성인자녀간 갈등척도는 총 24문항의 3개 하위요인(재정적 갈등영역, 가치관 갈등영역, 정서적 갈등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정적 갈등영역은 용돈부족, 노후대책 걱정, 생활비 문제, 재산문제 등에 관한 6문항이며, 가치관 갈등영역은 자녀의 생활태도 문제, 자녀의 손자녀 양육방법, 자녀와의 사고방식 차이, 자녀와의 성격 차이 등에 관한 7문항이고, 정서적 갈등영역은 무시당함, 소외, 무관심, 무력감, 쓸쓸함 등에 관한 11문항이다. 그러나 이 척도는 개발당시 안면타당도에 의거하여 객관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였으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가족형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 갈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김재환 등, 2008; 성태제, 2002). 한국은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대가족 및 친족 조직 붕괴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여 핵가족 및 부부중심가족으로 소형화 추세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이윤정, 1994). 우리나라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 비율은 1990년 9%에서 2010년에 5%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국가통계포털, 2013). 가족형태, 노부모 부양형태 및 노부모-자녀간 가치관의 차이 등이 노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현대의 노부모와 자녀간 갈등 양

상의 변화가 반영된 갈등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최정혜, 1992).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인이 실제 자녀와 경험하는 갈등을 평가하는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부모-자녀관계만족도,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노인사기척도, 행복지수척도와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자녀관계만족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을 말하며, 갈등을 잘 다루고 해결할수록 관계는 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이수연, 2000; Jacobson & Christensen, 1996).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는 노부모-성인 자녀간의 객관적(접촉빈도, 거주 근접성, 상호부조 등) 및 주관적 유대관계(친밀감, 애정, 내재화된 규범 등)를 말하는 것으로, 결속력은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게 한다(이수연, 2000; 조희선, 1991, 최정혜, 1992). 사기척도와 행복지수척도는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갈등과 관련이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이들 변인들과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가 부적인 상관을 이루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렴 타당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하위요인이 관계만족도나 노인사기,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노인의 행복감과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신효식, 이신숙, 이윤정, 1994; 안정신, 2005; 이신영,

2010; 이윤정, 1994; 이주연, 정혜정, 2012; 정영숙 등, 2012).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개발은 비동거가족형태가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기존의 척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우리나라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갈등 관련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숙한 노화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참여자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0세에서 88세까지의 노인으로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노인 466명이었으며, 연구의 목적을 설명 드린 후 설문 참여에 구두로 동의한 노인에 한해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2월~3월에 노인 복지시설을 방문한 노인들과 부산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누락이 많은 23부가 제외되어 총 44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의 성비는 남성노인이 200명(4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1세( $SD=6.46$ )였고, 여성노인은 243명(5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9세( $SD=6.32$ )였다. 동거형태는 혼자 사는 노인이 58명(13%), 배우자와 사는 노인이 272명(61%), 자녀 또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109명(25%), 기타 다른 사람과 사는 노인이 3명(1%)이었다. 참여자의 학력은 무학이 11명(2.5%), 초졸 61명(13.8%), 중졸 103명(23.3%), 고졸 165명(37.2%), 대졸 89명(20.1%), 대학원졸이 10명(2.3%), 무응답이 4명(0.9%)이었다.

**측정도구**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 예비문항**

이 척도는 본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예비문항의 선정은 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2013)이 우리나라 노인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노인이 지각한 부모 및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나온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최근 자녀와의 관계에서 ‘언성을 높여 싸웠던 일’, ‘실망하거나 서운했던 일’, ‘화가 난 일’, ‘생각이나 뜻이 달라서 언짢았던 일’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그 경험을 상세히 구술하도록 하였다. 응답 분류 결과, 부모-자녀 관계 영역, 자녀의 자립과 자기관리 영역, 손자녀 영역에서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각 영역을 대표하는 32개 문항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문항을 제거하고 노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30문항의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아주 가끔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와의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관계만족도**

Hayes와 Stinnett(1971)의 중년기생활만족척도(MYLSS)와 임정빈(1988)의 연구를 기초로 작성한 최동숙(1992)의 가정생활만족도와 김경숙(1993), 유지영(1996), 장병옥(1997)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수연(2000)이 작성한 가족관계만족도 중 부모-자녀관계만족도를 측정하

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여 하였다. 이를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예 문항은 “어르신과 자녀들 간의 사랑과 상호 존중하는 정도에 대해”, “자녀들이 어르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에 대해” 등이다. Likert형의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한다, 2: 대체로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상에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관계만족도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5이었다.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척도**

조병은(1990)이 Bengtson과 Schrader(1982)의 가족결속도 개념들에 기초하여 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김효정(1995)이 변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적 결속, 기능적 결속, 일치적 결속, 애정적 결속의 4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접촉적 결속은 최근 얼마나 자주 자녀와 접촉을 가졌는지를 측정하는 직접접촉과 전화의 빈도를 측정하는 간접접촉에 대한 질문으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적 결속은 노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과 자녀가 노부모를 도와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치적 결속은 각 항목에 대해 자녀와의 가치 동일수준의 정도를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정적 결속은 노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과 유대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되었다. 각 하위 영역과 전체 결속도는 점수가 높

을수록 결속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 별 내적합치도는 접촉적 결속은 .61, 기능적 결속은 .76, 일치적 결속은 .73, 애정적 결속은 .76이었다.

#### 노인사기척도(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PGCMS)

Lawton(1975)이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유경, 이주일, 강연옥, 박근석(2009)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하위척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6문항)와 노인의 정서적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평정감(6문항), 그리고 노화가 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노화에 대한 태도(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항상 그렇다)상에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사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 별 내적합치도는 평정감은 .84, 노화에 대한 태도는 .78, 삶의 만족은 .82이었다.

#### 한국인의 행복지수척도

노인의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은국,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2010)이 개발한 한국인의 행복지수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총 9문항으로 삶의 만족(3문항), 긍정 정서(3문항), 부정 정서(3문항)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의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7: 매우 그렇다)상에 평정되었다. 전체 행복도는 삶의 만족감과 긍정정서의 합에서 부정정서의 점수를 뺀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 긍정적 정

서, 부정적 정서의 내적합치도는 .82에서 .89이었다.

#### 절차와 자료분석

2013년 2월~3월에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일부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연구원이 개별적으로 질문지를 읽어주며 작성하였다.

SPSS windows18.0을 이용하여,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각 갈등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와 문항 총점 간 상관관을 조사하였다. 수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자녀관계만족도,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노인의 사기척도, 행복지수척도와의 상관관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하위요인들이 부모-자녀관계만족도, 사기,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질문지 조사에서 수집되어 간추려진 30개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SPSS18.0을 이용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값은 .929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은 5258.570( $p < .001$ )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이학식, 임지훈, 2011). 측정 변인들의 관계에서 변인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적 변인을 추출할 수 있고,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통요인분석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엄한주, 2001).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를 이용한 누적분산비율과 Scree plot, 그리고 요인구조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모두 7개로 그 값은 다음과 같다: 11.21, 2.21, 1.35, 1.23, 1.18, 1.11, 1.00. 7개의 요인은 총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하고 있어 전체 변량을 설명하는 것에 관하여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개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은 의미상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었고, 그 중 4개의 요인은 해당 문항의 수가 단지 1~2개로 나타나 독립된 요인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Scree plot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요인 수가 한 개에서 두 개로 증가함에 따라 고유치의 감소폭이 소폭으로 체감되므로 두 개의 요인으로 추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으나 2개 요인으로 묶인 문항 또한 의미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순묵(1995)은 요인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해석가능성이 우선되어 고려되어야 하며, 해석가능성을 검토 후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엄한주(2001)는 요인구조의 선행연구에서 발췌한 문항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번 다양한 조건으로 반복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예비문항의 토대가 된 서수균 등(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성인자녀 갈등 영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고유치 1.2 이상에 해당하는 요인 수 4개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요인수를 4개로 놓고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그 값은 11.21, 2.21, 1.35, 1.23이었다. 엄한주(2001)에 따르면, 요인 수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한  $\chi^2$  검증은 표본수( $n$ )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chi^2$ 값과 자

유도( $df$ )의 비율이 약 3.0이하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에 검증결과,  $\chi^2$ 값과 자유도( $df$ )의 비율이 2.41로 적절하였으며, RMSEA 값도 .056( $p < .08$ )으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이어서 Oblimin 방법으로 회전하여 요인계수행렬을 구하였다. 요인계수행렬에서 표적요인계수가 .40보다 적거나 비표적 요인계수가 .30이상인 문항, 요인계수가 .30이상인 교차 부하량을 가진 문항을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30개의 예비문항에서 12문항이 탈락되고 4요인 구조의 18문항으로 구성된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요인별 문항과 요인계수가 표 1에 제시되었다.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첫 번째 요인(6문항)은 부모에 대한 관심/접촉 부족, 두 번째 요인(3문항)은 자녀의 자기관리 부족, 세 번째 요인(6문항)은 부모에 대한 무시, 네 번째 요인(3문항)은 손자녀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 신뢰도와 하위척도 간 상관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관심/접촉부족요인의  $\alpha$ 값은 .85이었고, 자녀의 자기관리부족요인의  $\alpha$ 값은 .78이었다. 무시요인의  $\alpha$ 값은 .87이었고, 손자녀문제 요인의  $\alpha$ 값은 .62였다. 3문항에서 많아야 6문항에 불과한 적은 문항 수임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연구를 수행하기에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각 문항과 하위척도 총점 간의 상관은 표 1에서 각 문항 옆의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문항-하위척도 총점간 상관은 .61에서 .85사이였으며, 문항-하위척도 총점간 상

표 1.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요인별 문항과 요인계수

문항	요인계수			
	1	2	3	4
<b>요인 1. 관심/접촉부족(6문항)</b>				
부모의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 (.73)	<b>.71</b>	.24	.10	-.14
무뚝뚝하고 다정하지 못하다. (.79)	<b>.66</b>	.03	-.09	-.02
집에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77)	<b>.66</b>	-.13	-.08	.09
가족모임에 바쁘다며 자주 빠진다. (.76)	<b>.60</b>	.05	-.07	.06
부모가 아파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73)	<b>.57</b>	.12	-.23	-.03
전화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 (.77)	<b>.52</b>	.06	-.16	-.05
<b>요인 2. 자녀의 자기 관리 부족(3문항)</b>				
생활이 불규칙적이다. (.86)	.13	<b>.87</b>	.09	-.04
돈을 절약하지 않고 낭비가 심하다. (.81)	.02	<b>.58</b>	-.18	.14
자녀가 청소나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80)	-.04	<b>.56</b>	-.20	.02
<b>요인 3. 무시(6문항)</b>				
부모의 방식은 구식이라며 들으려하지 않는다. (.83)	.08	.04	<b>-.80</b>	-.08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다. (.85)	.07	.16	<b>-.75</b>	-.14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85)	.16	.08	<b>-.68</b>	.06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80)	.13	.13	<b>-.58</b>	-.05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며느리(혹은 사위) 편을 든다. (.73)	.27	.05	<b>-.42</b>	.18
부모보다 일을 더 중요시 한다. (.71)	.27	-.23	<b>-.41</b>	.28
<b>요인 4. 손자녀문제(3문항)</b>				
대를 이를 손자가 없어서 아쉽다. (.80)	.13	-.01	.19	<b>.57</b>
손자녀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83)	-.11	.08	-.06	<b>.44</b>
손주 양육방식에서 의견이 다르다. (.61)	-.17	.23	-.24	<b>.43</b>
고유치	7.88	6.08	7.90	4.20
요인 설명량(%)	26.28	20.26	26.30	14.00
전체 설명량(%)	53.33			

주. 각 문항 끝의 괄호안의 값은 문항-하위척도 총점간의 상관계수임.

관의 평균은 요인별로 각각 .75, .82, .79, .75 간의 상관은 .26에서 .69사이로 모두 유의한  
로 높은 편이었다. 표 2에 따르면, 하위요인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내적합치도 및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관심/접촉부족	자녀의 자기관리부족	무시	Cronbach $\alpha$ 값
관심/접촉부족				.85
자녀의 자기관리부족	.41**			.78
무시	.69**	.50**		.87
손자녀문제	.26**	.36**	.30**	.62

\*\* $p < .01$

**남녀 집단 간 평균비교**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하위요인 별로 남녀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집단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어느 하위요인에서도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수렴 타당도**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 하위요인들은 부모-자녀관계만족도,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총점, PGCMS, 행복지수척도와 모

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의 하위요인들과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하위요인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 하위요인들은 일치적 결속, 애정적 결속 모두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접촉적 결속과 기능적 결속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낮거나 중간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와의 신뢰와 존경과 같은 유대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애정적 결속은 이와 상반된 내용, 즉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무시와 보다 높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r = -.41, p < .01$ ).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하위요인 중 관심/접촉부족 및 무시는 관련된 척

표 3. 하위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녀 차이 검증

하위요인	평균(표준편차)			$t$
	전체( $N=443$ )	남자( $n=200$ )	여자( $n=243$ )	
관심/접촉부족	11.40(5.00)	11.37(5.00)	11.42(5.01)	-.10
자녀의 자기관리부족	5.03(2.55)	5.14(2.69)	4.94(2.43)	.82
무시	11.31(5.05)	11.59(5.10)	11.08(5.01)	1.01
손자녀문제	5.10(2.67)	5.18(2.56)	5.03(2.76)	.56

표 4.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와 다른 척도와의 상관

	관심/접촉부족	자녀의 자기 관리 부족	무시	손자녀문제	총점
부모-자녀관계만족도	-.35**	-.36**	-.39**	-.21**	-.37**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접촉적결속	-.32**	-.09	-.29**	-.15**	-.29**
기능적결속	-.15**	-.05	-.15**	-.05	-.13**
일치적결속	-.29**	-.39**	-.33**	-.20**	-.34**
애정적결속	-.32**	-.27**	-.41**	-.19**	-.36**
총점	-.36**	-.26**	-.40**	-.19**	-.38**
PGCMS	-.38**	-.32**	-.40**	-.23**	-.40**
행복지수	-.37**	-.29**	-.49**	-.15**	-.38**
연령	.01	-.14**	-.02	-.06	-.06
학력	-.14*	-.01	-.01	.02	-.07

주.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 $p < .05$ , \*\* $p < .01$

도들과 전반적으로 중간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녀의 자기관리부족 및 손자녀문제는 전반적으로 약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지지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만족도, PGCMS, 행복지수척도에 대한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 갈등의 단계적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와의 갈등이 부모-자녀관계만족과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사기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전진숙, 변인우, 송혜란, 오병훈, 2004). 1단계에서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던 연령과 학력을 통제한

후, 2단계에서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 갈등 척도의 하위요인을 예언변인으로 지정하고 성별을 달리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하위요인들이 부모-자녀관계만족도, 사기,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총점 대신 하위요인 별로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남성노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심/접촉부족이 부모-자녀관계만족도, PGCMS, 행복지수를 유의하게 설명해주었다. 관심/접촉부족은 부적인 회귀계수를 보여 부모-자녀관계만족도, PGCMS, 행복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여성 노인의 경우,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 요인 중에서 무시와 자녀의 자기관리부

표 5. 남성노인의 부모-자녀관계만족도, PGCMS, 행복지수척도에 대한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 갈등의 단계적 회귀분석 (n=200)

종속변인	단계	예언변인	B	SE	$\beta$	t	R <sup>2</sup>	$\Delta R^2$	Tolerance
부모- 자녀관계 만족도	1	연령	-.08	.07	-.12	-1.21	.014	.014	.95
		학력	.05	.14	.04	.39			
	2	연령	-.06	.06	-.09	-1.01	.141	.127	.95
		학력	.02	.13	.01	.12			
		관심/접촉부족	-.34	.09	-.36	-3.98***			
		자기관리부족	-	-	-.11	-1.18			
		무시	-	-	-.19	-1.47			
손자녀문제	-	-	-.07	-.71					
PGCMS	1	연령	.09	.17	.05	.50	.002	.002	.95
		학력	-.05	.35	-.01	-.14			
	2	연령	.15	.15	.09	1.02	.267	.265	.95
		학력	-.19	.30	-.05	-.62			
		관심/접촉부족	-1.24	.20	-.52	-6.22***			
		자기관리부족	-	-	.04	.41			
		무시	-	-	-.22	-1.77			
손자녀문제	-	-	-.01	-.11					
행복지수	1	연령	.12	.15	.10	.83	.029	.029	.88
		학력	.33	.33	.11	.99			
	2	연령	.16	.14	.12	1.17	.174	.145	.88
		학력	.35	.31	.12	1.13			
		관심/접촉부족	-.74	.19	-.38	-3.82***			
		자기관리부족	-	-	.05	.45			
		무시	-	-	-.08	-.54			
손자녀문제	-	-	.01	.10					

주.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p<.001

족이 부모-자녀관계만족도 분산의 27.9%를 설명하였다. PGCMS는 부모에 대한 무시와 자녀의 관심/접촉부족에 의해 PGCMS 분산의 29.0%가 설명되었으며, 행복지수척도의 경우 부모

에 대한 관심/접촉부족에 의해 노부모의 행복지수 분산의 22%가 설명되었다. 남성노인과 마찬가지로, 여성노인에게도 자녀의 관심과 접촉은 노부모의 사기와 행복에 영향을 미

표 6. 여성노인의 부모-자녀관계만족도, PGCMS, 행복지수척도에 대한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 갈등의 단계적 회귀분석 (n=243)

종속변인	단계	예언변인	B	SE	$\beta$	t	R <sup>2</sup>	$\Delta R^2$	Tolerance
부모- 자녀관계 만족도	1	연령	.15	.05	.28	3.00**	.066	.066	.82
		학력	.08	.07	.10	1.06			
	2	연령	.09	.05	.17	1.92	.279	.033	.76
		학력	.02	.07	.03	.34			
		무시	-.20	.07	-.28	-2.84**			
		자녀의 자기관리부족	-.33	.14	-.24	-2.40*			
		관심접촉부족	-	-	-.05	-.54			
손자녀문제	-	-	-.07	-.83	.78				
PGCMS	1	연령	.41	.16	.23	2.49*	.074	.074	.81
		학력	.68	.23	.27	2.95**			
	2	연령	.24	.15	.14	1.63	.290	.045	.78
		학력	.44	.21	.18	2.07*			
		무시	-.66	.21	-.28	-3.20**			
		관심/접촉부족	-.62	.22	-.26	-2.88**			
		자기관리부족	-	-	-.15	-1.52			
손자녀문제	-	-	-.06	-.65	.77				
행복지수	1	연령	.48	.13	.37	3.65***	.115	.115	.81
		학력	.50	.20	.25	2.50*			
		연령	.40	.13	.30	3.14**			
	2	학력	.30	.19	.15	1.54	.220	.104	.78
		관심/접촉부족	-.66	.17	-.34	-3.82***			
		자기관리부족	-	-	-.18	-1.72			
		무시	-	-	-.18	-1.75			
손자녀문제	-	-	-.09	-.96	.64				

주.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p<.05, \*\*p<.01, \*\*\*p<.001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의 무시하는 태도는 여성노인의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와 사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에게 대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부모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평가할 수 있

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수균 등(2013)이 노인이 지각하는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나온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관심/접촉부족, 자녀의 자기관리부족, 무시, 손자녀문제라는 4개요인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전체 문항 신뢰도는 .90으로 높게 나타났고, 4개 하위요인의 신뢰도도 .62~.87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심/접촉부족요인은 자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덜 가지고 자주 방문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데서 오는 갈등을 담고 있다. 자녀의 자기관리부족요인은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 돈 낭비 등과 같이 자신의 생활 및 경제적인 부분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는 인식과 관련된 갈등을 반영한다. 무시요인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거나, 의논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등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의사 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키는 태도와 행동을 담고 있다. 손자녀문제요인은 대를 이을 손자가 없어 서운한 마음, 손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담고 있다.

요인간 상관분석 결과, 관심/접촉부족과 자녀의 자기관리부족이 무시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관심이 적고 연락을 하지 않을수록 부모는 자녀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진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 부모의 기대나 바람의 좌절을 가져오고 그 결과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자녀관계만족도,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 PGCMS, 행복지수척도와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두 유의한 부

적상관을 보여 양호한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특히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무시요인이 행복지수척도와 높은 수준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하위요인 중 부모-자녀관계만족도, 행복 및 사기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노인의 경우, 부모-자녀관계만족도에서 관심/접촉부족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노인의 경우는 무시요인과 자녀의 자기관리부족요인이 중요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노인들이 경직되게 성역할이 구분되었던 시대를 살았던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던 남성들이 은퇴 후 주된 생활의 장이 가족으로 바뀌고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멀어졌던 자녀와의 유대감을 원하게 되고, 따라서 자녀들로부터의 관심/접촉부족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자식에게 많은 희생을 하고,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남성들보다 큰데 비해 현실적으로 자녀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때 관계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더욱 실망하게 되고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김귀애, 홍창희, 2012; 이윤정, 1994).

여성노인의 PGCMS에는 남녀공통으로 나온 관심/접촉부족을 제외하고 무시가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지금의 여성노인들은 가사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희생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의 능력과 기여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사기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백완기, 1986; McCulloch, 1990).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퇴해가는 노년기를 경험하는 노인에게 있어 삶의 조력자로서 자녀의 역할을 시사하는 것이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인정받고, 자녀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접촉을 받는 것이 노인의 사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복지수척도에는 남녀 공통으로 관심/접촉부족만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 사회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이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보고한 정여진과 안정신(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녀와 전화나 편지를 통해 빈번히 대화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높은 심리적 복지감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한다(송지은, 2006). 이는 서구와 달리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살아온 한국 노인들에게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자녀와 심리적 유대감을 갖고자 하는 기대가 큰데 비해, 이에 대한 좌절로 인한 갈등이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는 노인과 자녀가 생활하고 관계하는 제 영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요소를 토대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및 정서를 반영하면서 노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노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갈등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동거 가족형태가 늘어나는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자녀의 관심/접촉부족이 중요 요인으로 척도에 포함되어 재정, 가치, 정서적 부분만을 강조한 기존의 척도를 보완하였다.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의 하위요인이 관계만족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관심/접촉부족요인이 남녀 모두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녀와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성노인의 경우, 무시요인이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대해 노인이 인지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 속에서 이루어 낸 것들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연구에 참여한 모든 피검자가 부산 및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집단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갈등 정도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혼자 사는 노인간 다를 수 있으므로 이는 이후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갈등척도는 노부모의 관점에서 자녀에 대해 느끼는 갈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노부모와 자녀 간 쌍방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갈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부모와 자녀 쌍방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평균연령이 70세로 비교적 젊은 노인

들에 속하기 때문에 노부모가 지각한 자녀 갈등 요인 중 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갈등을 포함하는 손자녀문제가 고령의 노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국가통계포털 (2013). 1990, 2010 인구총조사 결과.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에서 2013, 8, 1 인출.
- 김경숙 (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 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귀애, 홍창희 (2012). 중노년기 여성의 우울에 성인 자녀와의 갈등과 통제 전략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03-321.
- 김재환, 오상우, 홍창희, 김지혜, 황순택, 문혜신, 정승아, 이장한, 정은경 (2008). 임상심리검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지영 (2005).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18-2), 1-187.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2). *한국노년학*, 19(1), 61-81.
- 김효정 (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완기 (1986). *행정학*. 서울: 박영사.
- 백지은, 최혜경 (2007).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37-153.
- 서은국,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그 의미.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3-232.
- 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 (2013). 한국 노인이 지각한 부부 및 성인자녀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389-412.
- 성미애, 옥선화 (1991). 부모세대의 피부양 만족도와 기혼자녀세대의 부모부양부담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 16, 27-39.
- 성태제 (2004).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학지사.
- 송지은 (2006).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종단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6(3), 581-599.
- 신효식, 이신숙, 이윤정 (1994). 노부모의 성인 자녀와의 갈등 및 우울에 관한 연구. *가정과학연구*, 4, 41-56.
- 안정신 (2005). 중노년기 미국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전생애 발달 과정의 부모자녀관계와 생산감 발달의 영향. *한국노인사회*, 23(2), 245-266.
-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Cooney, M. T. (2011). 성공적 노화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35-54.
- 엄한주 (2001). 요인분석 모형의 이해와 적용: 주성분모형과 공통요인모형의 방법론적 비교.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3(1), 101-130.
- 유경, 이주일, 강연욱, 박군석 (2009). 노년기 정서 경험의 변화와 주관적 안녕감: 종단 연구 분석. *한국노년학*, 29(2), 729-742.
- 유지영 (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

- 사학위 논문.
- 유희정 (2011). 노년기 세대관계 유형에 관한 종단연구(1):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87-111.
- 이수연 (2000).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I. 서울: 학지사.
- 이신영 (2010).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성별 비교 연구. *젠더와 문화*, 3(1), 99-130.
- 이윤정 (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연, 정혜정 (2012). 초기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와 성인자녀에 따른 집단유형과 심리적 부적응의 차이. *한국노년학*, 32(4), 975-991.
- 이주일, 박군석, 유 경, 김영범, 장숙량, 윤현숙, 유희정, 김동현 (2008). 성공적인 한국노인의 삶: 다학제간 심층 인터뷰 사례. 서울: 박학사.
- 이학식, 임지훈 (2011). SPSS 18.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효재 (1986).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임정빈 (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병옥 (1997). 취업주부의 부부역할수행,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진숙, 변인우, 송혜란, 오병훈 (2004). 한국노인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정신의학*, 8(1), 56-62.
- 정여진, 안정신 (2010).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가족관계 변인이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35-550.
- 정영숙, 조설애, 안정신, 정여진 (2012). 한국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9-41.
- 조병은 (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1), 105-124.
- 조희선 (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동숙 (1992).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63-178.
- 최정혜 (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정혜 (2009). 한국과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부양행동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9(2), 611-627.
- 최형주, 김정석 (2012). 자녀관계와 자아통합감. *한국인구학*, 36(2), 89-103.
- Arling, G. (1976). The elderly widow and her neighbors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4), 757-768.
- Bengtson, V. L. (1981). Research across the generation gap. *Relationships: The Marriage and Family Reader*, 82-99.
- Bengtson, V. L., & Schrader, S. S. (1982). Parent-child relation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2, 115-186.
- Cicirelli, V. (1983).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815-825.



- Galvin, K. M., Brommel, B. J., & Bylund, C. (1982).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Glenview, IL: Scott, Foresman.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 Hayes, M. P., & Stinnett, N. (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669-174.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Acceptance and change in couple therapy: A therapist's guide to transforming relationships*. New York: Norton.
- Lawton, M. P. (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el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30, 85-89.
- McCulloch, B. J. (1990). The relationship of intergeneration reciprocity of aid to the morale of older parents: Equity and exchange theory compariso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5(4), 150-155.
- Miguel, J., & Postigo, L. (2010). The co-residence of elderly people with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Education Gerontology*, 36, 330-349.
- Suitor, J. J., & Pillermer, K. (1988).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88(50), 1037-1047.
-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57-73.

1차원고접수 : 2013. 09. 27.

수정원고접수 : 2014. 02. 28.

최종게재결정 : 2014. 04. 09.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of Elderly Parents-Perceive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SuGyun Seo<sup>1</sup>      JeeHye Jeon<sup>1</sup>      JeongShin An<sup>2</sup>      YoungSook Chong<sup>1\*</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the Scale of Elderly Parents-Perceive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For this, the current study was based on the preceding exploratory research which had investigated the conflict between elderly parents and children. A total of 443 Korean elderly who were over 60 years of age participate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rovided support for a 4-factor structure (Lack of interest/contact, Lack of self-care of children, Disregard, Issues for grandchildren) and the Scale of Elderly Parents-Perceive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ther scales which measure solidarity, morale, and happiness. Lastly, the regression analysis examined the effect of the sub scales on the satisfaction for a parent-child relationship, morale, and happiness and showed the Lack of interest/contact for elderly men and women significantly predicte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happiness.

*Key words* : Scale of Elderly Parents-Perceive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Morale, Happiness Index